

제4실 | 향목과 계량기 | 전시 해설

N-123 오마스(큰 되)

N-124~128의 잇쇼마스와 세트로 호류지에 전해져 온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삼나무를 사용하였고 입부분의 테두리에는 대나무를 사용했습니다. 용적은 5층 2흡 8작(9.521리터)으로, 잇쇼마스(한 되들이 되)의 5배에 해당하여 고쇼마스(다섯 되들이 되)일 가능성이 큽니다. 명문은 남아 있지 않지만, 잇쇼마스와 마찬가지로 무로마치시대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N-124~128 잇쇼마스(한 되들이 되)

무로마치시대에 호류지에서 사용한 5개의 잇쇼마스입니다. 용적은 8흡 2작(1.472 리터)에서 1층 4작(1.87 리터)까지 다양하지만 모두 잇쇼마스로서 사용되었습니다. 중세에는 지금과 달리 각 장원이나 영주, 혹은 사원에 따라 같은 잇쇼마스라도 다양한 용량의 마스가 사용되었습니다. 이 5개의 잇쇼마스에는 제작된 연대와 용도 등이 각각 새겨져 있습니다.

N-112 전단향

N-113 백단향

N-114 침수향

인도에서 동남아시아에 걸쳐 열대와 아열대 지역에서 자라는 나무 중에는 좋은 향기를 풍기고 수지가 나오는 향나무가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향나무가 재배되지 않기 때문에 수입했습니다. 불교에서는 예배와 의식에서 부처와 보살에게 향을 바치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에 향나무는 불교와 함께 전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예부터 사원에서는 향나무를 소장하고 있었으며 호류지에서는 전단향, 백단향, 침수향 등이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전단향과 백단향에는 사산 왕조 페르시아 팔라비 글자로 새긴 명문과 소그드 글자의 태운 인장이 있습니다. 팔라비 글자로 새긴 명문은 무역에 관련된 사람들의 이름으로, 소그드 글자의 태운 인장은 어떠한 단위로 추정됩니다. 이를 통해 동남아시아 주변에서 생산한 향나무를 소그드인이나 페르시아인이 중국 당나라로 운반하고 일본에 전해졌다는 경위를 알 수 있습니다.

침수향은 열대 지역에서 생산하는 침향나무를 땅에 묻어 부패시켜 만든 향나무로 부패한 나무의 독특한 형태를 하고 있습니다. 불교 회화에서도 침향을 바치는 모습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N-121 청자 네 귀 달린 향아리

정향이라는 향료를 담은 용기입니다. 향아리의 어깨 부분에 새겨진 ‘부처 불(佛)’ 등을 통해 747년에 작성된 호류지의 역사와 재산 목록에 관한 기록 중 ‘성분(부처와 보살의 공양에 사용된 것)’에 해당하는 것으로 정향을 보관했던 용기라고 추정됩니다. 명확한 내력을 가진 가장 오래된 도자기입니다. 중국의 장난 지역에서 생산한 청자로 둥글고 가쁜한 형태로 보아 당시대 전기의 작품으로 추정됩니다.

N-115-1 청목향

인도 북부 카슈미르 지역에서 자생하는 국화과 다년생초인 목향의 뿌리를 말린 것으로 약이나 향의 재료로 쓰였습니다. 『호류지 헌물장』에 기록되어 있는 쇼무 천황이 봉어했을 때 헌납되었던 애용품 중

하나로 전해지지만, 호류지의 역사와 재산 목록을 기록한 기록서에 기재된 침향목 중 하나였을 가능성이 큼니다.

N-115-2 풀꽃을 은으로 그린 칠피 상자

청목향을 넣었던 용기입니다. 동물 가죽을 나무틀에 씌워 모양을 잡고 옷칠하여 말리는 칠피 기법으로 만들었습니다. 표면에는 은색 안료를 아교에 갠 은니로 풀꽃무늬를 그렸으나 상당히 흐려진 상태입니다.

N-83 홍색 상아 발루 자

덴포척(나라시대에 사용된 자)의 일 척(약 29.7cm)자로, 상반부를 5개로 구획해 눈금을 표시했습니다. 발루란 상아를 홍색 혹은 녹색, 감색 등으로 염색한 후 표면을 파서 흰색 무늬를 나타내는 기법입니다. 중국 당시대에 사용되었던 기법으로 쇼소인 보물과 호류지 헌납 보물 중에서만 확인되는 기법입니다.

이 자는 홍색으로 염색한 상아의 표면에 선으로 보상화와 원앙무늬가 새겨져 있습니다. 선으로 파낸 무늬가 얇고, 갈색이 칠해져 있는 점 등, 쇼소인 보물 중 발루 기법으로 제작된 것과는 달라 일본에서 제작된 것으로 추정됩니다.